

경계선 지능 학생 통합적 지원 체계 필요

전북교육청, 정책 포럼 열고 지원 방안 모색

교원·전문가·학부모 등 40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현장의 과제와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실천적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현장의 과제와 정책적 대안(정하나 교수, 명지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박정희 의원, 전

북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초등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례 및 제언(박명원 교사, 감곡초) △중등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례 및 제언(박동혁 교사, 설천중) △느린학습자 부모의 눈으로 본 학교 현장 지원 과제(최수진 대표, 느린소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교사·전문가·정책 담당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 조별과 기초 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기반으로 학교 급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단순히 학습이 느린 것이 아니라, 교육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사와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해 학습 자신감과 사회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부설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은 지난 13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34회 군산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한국전통예술(관현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 '최우수상'

군산부설초 국악관현악단

군산부설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은 지난 13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34회 군산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한국전통예술(관현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 규모의 전통예술 경연으로, 군산부설초 국악관현악단은 '공아의 숨결'을 연주, 관객과 심사위원단의 호응을 얻었다.

김희재 교사는 "우리 학생들의 전통음악 속에서 협력과 성취의 기쁨을 배워가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선영 교장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 담당 교사의 헌신과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빛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우리 전통예술 안에서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차기 교육금고지정

일반경쟁 재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일반경쟁 재공고를 누리집에 올렸다. 지난 8월 26일 일반경쟁 공고 이후 9월 3일 열린 사전 설명회에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참석했으나, 11일 신청 마감 결과 농협은행만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15일 재공고를 하고, 관련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판소리와 가부키의 만남

전주대, 쇼치쿠와 함께 '한일 전통예술 페스타'

전주대학교는 오는 19~20일 일본 전통예술 기업인 쇼치쿠와 함께 '한일 전통예술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 인재양성사업단(이하 HUSS사업단), RISE사업단, 로컬콘텐츠중점대학과 함께 주식회사 톤, 한국일본문화학회 그리고 일본의 전통예술 기업 쇼치쿠(松竹) 주식회사가 공동 주최·주관해 의미가 크다.

첫날에는 판소리 명창과 가부키 배우가 강연과 공연을 선보이고, 둘째날에는 토크콘서트와 학술 발표가 이어진다. HUSS사업단 이용욱 단장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페스타는 양국 전통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에게도 잊지 못할 감동의 문화 체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전통예술 페스타'는 일반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이메일(jjhuss@jj.ac.kr)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시각장애교육의 이해'

전주교대, 리더특강 진행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2일 '시각장애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학기 개강을 맞아 재학생에게 예비교사로서의 다양한 교육가치관 정립을 돕기 위해 전북맹아학교 정문수 교장을 초청해 장애학생교육의 필요성 △학대해심교육과정(ECC)의 이해 △학대해심교육과정(ECC)의 영향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재학생 133명이 참여해 예비교사로서 장애학생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교육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특강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교사로서 갖춰야 하는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2학기에도 다방면의 분야를 아우르는 리더특강을 개설,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15일 전주영생고를 찾아 전국체전에 대비해 훈련 중인 축구 종목 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자신의 역량 최대한 발휘해 좋은 성적 거두길”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전주영생고 축구부 격려... 영생고, 전국체전 축구 전북대표 출전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15일 전주영생고를 찾아 전국체전에 대비해 훈련 중인 축구 종목 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에 따르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7~23일 7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은 57개교 429명이 37개 종목에 참가한다.

전주영생고는 축구종목 전북대표로 출전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훈련을 이어온 선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참가 선수단에 훈련비 및 용품·장비비, 대회출전비 등을 지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상생·산학협력 증진 '맞손' | 전주대, 우체국 금융개발원과 협약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는 15일 본교 접견실에서 우체국금융개발원(원장 신대섭)과 지역 상생과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 서비스 전문 공공기관인 개발원, 실무형 금융보험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대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상생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재학생의 정기 산학 현장 교류 및 견학 활성화 △공공기관 설명회 참여 확대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대학교는 15일 본교 접견실에서 우체국금융개발원과 지역 상생과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계기"라며 "양 기관의 체계적인 산학 협력을 통해 국가의 금융·보험 전문 급 간편 혜택도 제공한다. 권수태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 상생과 금융·보험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넘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고1학년생 대상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따른 과목선택 지원... 향후 농어촌 고교 방문 상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3~14일 전주 진로진학센터에서 고1 대상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고1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최적의 학습 경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입지원단,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교사 등 베테



랑 전문가들이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1인당 45분 내외의 상담을 통해 학생

들은 자신의 진로·적성을 파악하거나 2학년 이후 과목선택 및 대입 전략과 학습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한편, 고1 대상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오는 20~21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고1 학생을 위한 농어촌 고교 방문 상담도 추진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 급식분야 부패 없앤다

전북교육청, '급식분야 청렴추진제와 함께하는 공감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2025년 급식분야 청렴추진제와 함께하는 공감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학교급식 부패 취약분야 문제점 개선을 위한 현장 노력 사례를 공유하고, 신뢰받는 급식 운영을 위한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비롯해 학교(원)장 32명, 행정실장 44명, 영양(교)사 90명, 조리실무사 29명 등 248명이 참석했다. 문창룡 전 전주서일초 교장은 '학교밥이 맛있어야 좋은 학교입니다'라는 주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급식 운영을 위한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던 점을 소개했다. 문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생활을 오픈하고, 영양교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했다"며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상호 존중과 신뢰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진 'Fun한 청렴 특강'에서는 청렴의 의미와 조직 내 실천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특히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등 소통을 통해 청렴이 조직문화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짚어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연수가 신뢰받는 급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부패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4일간의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

우석대, 22~25일 'Fun Week'

어울림·진로탐색 등 구성

학습 효과·진로 지도 향상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오는 22~25일 'Fun Week'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키우고, 교수와 학생 간의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학습 효과와 진로 지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Fun Week'는 △Fun Together(어울림·22~23일) △Fun Plus & Fun Explore(경험확장 및 진로탐색·24일) △Fun Major(전공몰입·25일)로 나뉘어 운영된다. 첫날인 Fun Together에는 대동제와 학과대항 운동회, 유학생 공연 및 문화체험 등 학생 참여형 행사로 운영된다. 특히 제4대 기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대동제가 캠퍼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24일 Fun Plus & Fun Explore에는 전공박람회와 취업박람회, 비교과 특강, 학생상담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역량개발을 위한 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우석대 'Fun Week' 포스터

행사 마지막 날인 25일 Fun Major에는 각 학과가 주도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박노준 총장은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넘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